

청정한 체 하는 것은 ‘나와 남’ 속이는 것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⑭ 행자 관섭의 흥계

경허 스님을 모시던 관섭(寬燮)이라는 행자가 겪은 일이다. 행자 관섭은 짧은 식견이지만 경허 스님의 법문을 좋아했다. 하지만 스님의 무애행 만은 질색했다.

행자 관섭이 경허 스님의 곡차 심부름을 몹시 귀찮게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다.

경허 스님이 안주를 사오라며 돈을 건넸다. 행자 관섭은 안주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몰래 비상(備藏)을 샀다.

행자 관섭은 술심부름에 시봉에 너무나 힘들어 경허 스님이 비상을 먹고 죽었으면 하는 막된 생각으로 흥계를 꾸었다.

행자 관섭은 비상을 훔쳐서 구운 닭고기 안에 곱고루 뿌려 넣었다. 그리고는 곡차와 닭 안주를 경허 스님에게 천연덕스럽게 가져다 올렸다.

행자 관섭은 경허 스님이 닭 안주를 먹으려 하자 막상 겁이 덜컥 났다. 관섭은 방을 빠져 나가 뒷문에서 문구멍으로 숨을 죽이고 경허 스님의 동정을 가만히 지켜봤다.

‘저걸 자시나 안자시나, 드신다면 곧 쓰러질 게 아닌가. 쓰러지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

관섭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직접 확인하려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허 스님이 먼저 곡차를 한잔 쪽 따라 마시고 닭 안주를 먹기 시작했다. 경허 스님이 닭 안주를 먹는

데 안에 무엇인가 버석버석 한 것이 있었다. 스님이 가만히 살펴보니 비상을 훔친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비상 가루를 씹히는 것만 털어버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다.

비상가루를 짓가락으로 하나하나 골라 털어버린 닭안주를 모두 먹은 경허 스님은 “아, 참 잘 먹었다”며 방에서 드러누웠다.

행자는 음식에 묻은 비상을 보면서도 태연히 드신 경허 스님의 경계를 지켜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행자 관섭은 겁이 나고 무서워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다가 후일 만공 스님에게 고백해 참회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 전까지 경허 스님은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⑮ 나와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

경허 스님이 서산 개심사 조실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개심사 주지 동은(東隱) 스님은 세간에 부자스님으로 소문나 있었다. 해마다 들어온 쌀을 조용히 모아 사찰이름으로 돈을 샀기 때문이다.

경허 스님이 하루는 시자인 사미승 경환을 시켜 동은 스님이 모아놓은 쌀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소문일 뿐 확인되지 않은 쌀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사미승 경환은 어리둥절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환의 질문에 경허 스님은 그저 다시 동은 스님의 방에서 쌀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경환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짓인데 어찌 그런 일을 스님께 지시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경허 스님은 경환에게 “이놈아, 너무 정직하기만 하면 못사는 것이니라. 정직한 체, 청정한 체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느니라. 알겠느냐?”고 경책했다.

경허 스님은 경환에게 다시 주지 방에 둔 쌀을 몰래 훔쳐올 것을 지시했다.

경환은 할 수 없이 쌀을 가지러 가기 위해 주지 동은 스님의 방으로 갔다.

주지스님 방에는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또

“개심사 주지 부자로 소문 났으니
모아 놓은 쌀을 몰래 가져오너라”
“정직하지 못한 일을 지시하십니까?”
쌀자루 올리니 ‘막걸리 사 오너라’

주지스님이 좀처럼 자리를 비우지 않아 쌀이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곳 근처조차 갈 수 없었다.

한 나절 동안 주지실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경환은 주지스님에게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주지스님, 실은 조실스님께서...”

그 사실을 전해들은 동은 스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크게 웃었다. 동은 스님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쌀을 내어주며 경환에게 말했다.

“조실스님의 장난은 이제 이런 것까지 서슴지 않으시니, 참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어찌됐든 노스님께 갖다 올려라”

경환은 무직한 쌀자루를 지고와 경허 스님에게 올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허 스님이 말했다.

“그 쌀을 가지고 아래 마을에 내려가 막걸리를 사 오너라.”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정한 체하는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것
...



그림·박구원



스승의 무애행에 질색한 행자

곡차 안주에 비상가루 뿌려

경허, 비상 털고 태연히 드신 후 함구

후일 행자는 만공에게 고백 참회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9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삼총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잡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룡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하십시오

크기 7.5 x 29c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발약썩양초

① 약썩초 90cm x90cm ② 약썩초 연봉 원기둥 7.0 x 34cm ③ 약썩초 돈타레 5.6 x 27cm
④ 약썩초 밀대 4.7 x 25cm ⑤ 약썩초 1호 5.9 x 18cm ⑥ 약썩초 2호 5.9 x 14cm
⑦ 약썩초 3호 4.7 x 13cm ⑧ 약썩초 4호 4.7 x 10cm ⑨ 약썩초 4호 반야심경 4.7 x 10cm
⑩ 약썩초 3호 반야심경 4.7 x 13cm ⑪ 약썩초 2호 반야심경 5.9 x 14cm ⑫ 약썩초 1호 반야심경 5.9 x 18cm
⑬ 약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약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호랑이, 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x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 x 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 x 27cm
④ 밀납초 밀대 4.7 x 25cm ⑤ 밀납초 1호 5.9 x 18cm ⑥ 밀납초 2호 5.9 x 14cm
⑦ 밀납초 3호 4.7 x 13cm ⑧ 밀납초 4호 4.7 x 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x 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x 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x 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x 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호랑이, 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 - 삼환양초

새개념 크리스탈 반침 PC컵 밀납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 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반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